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만찬의 특별한 경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내 백성을 성결케 하라! (Consecrate the People)” 는 하나님의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결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은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만큼 부정한 것이요, 성결하지 않은 만큼 더러운 것입니다. 거룩과 성결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본 교재는 원래 클라우드 킹 목사님께서 쓰신 Come To the Lord's Table 이란 책의 축소판입니다. 평소부터 교회의 최고 성례인 “주의 만찬 혹은 성만찬”을 귀하게 생각해오시던 차에 교회와 성도들이 보다 의미 있게 준비하며 “성만찬의 중심이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목적을 더 거룩하게 이루도록 이 책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한달 (28 일)의 과정이었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온 교회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8 일의 교재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허락을 얻어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최대한 의역을 피하고 직역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8 일간 저와 여러분이 “거룩과 성결”의 여행을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에 동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어떤 시험과 연단의 시간보다 의미있는 영적훈련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내용 중 굵은 글씨로 적혀있는 부분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도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찢려 쪼개는 데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데로,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실천해야만 본 교재가 의도하는 경건한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교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회복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시간을 생각하고, 세밀하게 관찰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번 주에 함께 나누게 될 “주의 만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주님의 살과 피에 연합하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 김대군 목사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찌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7-29**

첫째 날: 성회를 선포하라!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의 영적 리더가 성회를 선포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향한 언약과 헌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서일 것입니다. 성회(Sacred Assembly)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선 이미 고대로부터 행해져 왔습니다.

성회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로서 그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개인이나 그룹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는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성회는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 23:3) 다음과 같이 일곱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레 23:4-8), 오순절 (레 23:15-21), 나팔절 (레 23:23-25), 속죄일 (레 23:26-32), 초막절 (레 23:33-36).

성회는 하나님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회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신실한 순종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회는 예배, 제사, 축제,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기적인 성회의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떠나기 일수였습니다. 그렇기에 영적리더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나아가 마음을 함께하며 회개하며 돌아가는 진정한 성회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때에 메뚜기(locusts) 떼가 그 나라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 때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슬피 울 때였습니다. 요엘이 말하기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찌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찌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요엘 1:2-3). 이처럼 국가적인 재난이 선지자 요엘로 하여금 외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금식 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 1:14)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요엘 2:12)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케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요엘 2:15-16)

절박한 현실은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요엘은 바로 그 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회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현재 수 많은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무서운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한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열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13-14)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깨어져가는 가정과 결혼, 혼돈하는 교회들, 타락하는 도시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회는 개인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며, 경고의 나팔을 울리며, 성회로 모일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언약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요엘에게 “나의 백성을 성결케 하라!” 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당신이 그 하나님의 성회를 경험하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 날: 스스로 준비하라

당신의 삶 가운데 혹시 후대에 전해질 만한 어떤 재난이나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절망하며, 절규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음 사항에 동그라미를 하거나 그 외의 일들이 있었다면 빈칸에 기록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가뭄, 지진, 전염병, 경제위기, 붕괴, 홍수, 우박, 폭풍, 기름 유출, 재앙,
폭동, 깨어진 관계, 테러, 태풍, 해일, 화산 폭발, 전쟁, 산불

선지자 요엘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 상황은 성회로(sacred assembly) 모이기에 적합한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그 성회를 통해 그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회는 회복과 예배와 축제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영적인 일을 항상 이루어가고 있다면 선지자 요엘의 때처럼 급하게 성회로 따로 모이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엘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인생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를 거룩케하라!” (요엘 2:16)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19 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방식을 설명하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늘 새롭게하는 작업은 영적 리더들에게 중대한 의무입니다. 요엘서나 출애굽기에 나온 성결이란 단어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모든 부정하며 세속적이며 불경건한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함, 순결함, 성결함, 구별됨을 뜻합니다.

성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당신의 말로 그 의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옷을 빨며 성적인 관계를 절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도덕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책임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당신의 삶 가운데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결의 또 하나의 의미는 두 개의 히브리어가 더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 단어를 합하면 "열린 손을 채운다(to fill the open hand)"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 시대의 한 제사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제사장은 당신이 가져오는 제물을 받기 위해 두 손을 펴고 성전의 제단 옆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제물을 그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그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그 제물도 거룩해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한다면 사도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쓴 내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이 시간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받으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서 두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중 당신의 왕이요 주님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삶의 방식이 있다면 그 단어 옆에 체크하십시오.

- 교만함 깨끗함 사악함 거룩함 겸손함 부도덕 부정함 사랑
 순종 순결함 자기중심 불경건 순복 신실함

만일 당신이 많은 사람들처럼 교만함, 사악함, 부도덕, 부정함, 자기중심, 불경건과 같은 단어들을 피하셨다면 당신은 삶을 위하여 올바른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주간을 통해 당신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사로 스스로 준비하는 일을 돕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한주간을 통해 본 교재가 제시하는 성결의 과정에 기꺼이 참여하여 당신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까?

- 예, 나는 나의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쓸모 있는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거나 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좀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과 의지를 예수님께 기도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부담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성결한 삶의 축복과 유익이 무엇인지 계시하여주시기를 간구해 보십시오.

셋째 날: 첫 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 장에서 부활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들의 인내, 악을 허용하지 않음, 그릇된 가르침을 구별함,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일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를 책망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측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 14:15, 24).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준으로 당신의 사랑을 측량하신다면, 주님을 향한 당신의 첫사랑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체크 하십시오.

- a.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 b.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c.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주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여라도 우리들이 b 나 c 에 체크했을까 염려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의 책망을 들을까 두렵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계시록 2:4). 만일 당신의 사랑이 b 나 c 에 해당한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원하셨던 방식대로 주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억, 회개, 그리고 순종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당신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자 이제 기억하며, 회개하며 순종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다음 질문들에 짧게 대답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 당신의 구원을 기억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주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주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 당신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던 때를 회상해보십시오. 지금 보다 더욱 가깝게 주님을 경험하며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 주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해보십시오.
- 어떻게 죄의 유혹들을 이기며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넷째 날: 마음에 숨겨진 우상을 제거하라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감소하거나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아닌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 12:20) 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무엇이든 주님을 향한 전폭적인 사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첫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14 장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상숭배란 꼭 다른 신이나 형상에 절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일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은 사람일수도, 물건일 수도, 어떤 행동일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제거해야 할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첫 사랑으로 돌아감으로 당신의 영혼을 성결케 하십시오.

다음 성구들을 읽고 당신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사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묘사한 단어들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5)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 6:24)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중 당신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하십시오. 현재 당신의 마음속에서 우상이 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고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체크해 보십시오.

- 직업 돈 취미 쇼핑 텔레비전 권력 인기
- 클럽이나 친목회 여행 술/마약 도박 유흥
- 사람 운동 그 외: _____

당신의 우상숭배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상심하게 한 것을 슬퍼하십시오. 마음에 숨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첫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다섯째 날: 겸손을 취하고 교만을 버리라!

베드로는 잠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벧전 5:5-6). 교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 당신의 교만을 버림으로 스스로 성결케 하십시오.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다음 성구들을 읽으시고 교만함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23)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시편 138:6)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13)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5)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사야 13:11)

당신의 삶 속에 교만이 자리잡고 있으면 그 교만은 다양한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교만은 마치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만 잘라낸다면 곧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교만이 그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만으로부터 파생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다음을 읽어보시면서 당신의 삶에서 해결해야만 되는 교만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편견/선입견 자기 주장이 강함 성적 부도덕 무례함 자랑 방종

- 불평 고집 비판적인 성향 불순종 개인주의 이기적인 야심 잘난 척
- 기도하지 않음 정죄하는 마음 남의 실수에 민감함 과시욕 험담
- 권위에 대항 자기 만족 상대적 우월감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감사치 않음
- 죄를 버리지 않음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 오만함 주장하는 자세
- 남을 조정하려는 태도 조급함 용서하기 싫어함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함
- 자기의 정욕을 따름

당신의 교만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다음 중 한가지에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아니오

만일 당신의 대답이 "아니오"라면 교만의 최대의 증거가 됩니다. 교만은 모든 인생이 범하는 죄의 가장 근본적이며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죄악입니다. 베드로는 겸손을 취하는 것이 교만을 버리는 비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역대하 7:14 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치유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 네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1. 스스로 겸비하라. 2. 기도하라. 3.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4. 악한 길에서 떠나라

스스로 겸손을 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신의 교만의 문제를 철저히 다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입니다.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당신의 삶을 다스리는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십시오.
- 그리스도를 떠나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십시오.
-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교만하게 대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타인을 당신에게 맞추려 하던 모든 행위를 멈추십시오.
- 그리스도를 위하여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불평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 당신의 부족함과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타인의 도움을 용납하십시오.
- 하나님은 의지했지만 타인에게는 배타적이었음을 고백하십시오.
- 다른 이들을 당신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 당신의 교만이 하지 말라고 하던 것들을 행하십시오.
-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교만의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 당신을 교만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버리거나 필요한 이에게 주십시오.
- 당신보다 낮다고 생각하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기도: 주님께서 당신이 겸손을 배움으로 모든 교만과 그로 인한 증거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여섯째 날 : 하나님이 기록하시듯 기록하라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 1:15-16)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며, 순전하며, 정결하며,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결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명해 달라고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신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죄를 멈추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 마음속에 감추어진 정욕과 부정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 어떠한 형태이든 성적으로 부정한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 거짓과 부적절한 언어와 험담과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 분노와 원함과 복수심과 편견과 차별하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 그리스도와 다르게 만드는 모든 죄의 태도와 행동을 버리십시오.

어떤 죄의 패턴들은 결코 버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 장에 기록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삶의 실재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능력과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죄의 문제로 자주 갈등한다면 다음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죄에 대한 승리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16). 죄를 이기는 능력을 위해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십시오!

창세기 35 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예배의 시간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을 위한 “성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준비 시켰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35: 2-5)

만일 우리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야곱의 가족들처럼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부정하며, 천하며, 불경건하며, 악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을 허용하거나 받아들이며 심지어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결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결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모으십시오. 당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부정한 모든 것들을 보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원함을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가정을 성결케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셔서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당신의 옷장과 서랍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이 듣는 음악(CD)이나 영화(DVD)를 보실 것입니다. 당신의 책장에 놓인 책들도 보실 것입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거나 컴퓨터의 내용을 점검해 보실 것입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워하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모두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당신의 가족과 함께 모여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청소하십시오.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하십시오. 혹시 불확실하거나 아까운 물건들이 있다면 잠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모았다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악한 것들을 허용했음을 하나님께 자백하십시오.
- 하나님의 용서와 당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 세상적인 것들에 빼앗긴 마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충성과 사랑과 열정을 새롭게 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결하며 경건한 마음과 성품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직접 버리십시오. 다시는 유혹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직접 폐기처분 하십시오. 악하며 부정하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결코 다른 이에게 팔거나 주지 마십시오.

일곱째 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우리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 17:23). 우리가 연합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잃어버린 세상에 알리는 가장 확고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쟁은 불신자들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만일 당신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함으로 당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따로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깨어진 관계에 속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이 용서하지 않아서 깨어진 관계든, 상대방의 문제이든 그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행동, 언어, 혹은 태도에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해야만 되는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 5:23-24)

다른 이들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드리는 헌금이나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관계를 깨어지게 한 장본인이라면:

1.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2.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가서 문제점들을 바로 잡으십시오.
3. 하나님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죄를 고백하십시오.
4. 사과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5. 할 수만 있다면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여 말하십시오.
6. 상대방의 행동이나 자세를 탓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의 문제만을 다루십시오.
7. 필요하다면 화해를 위해 적당한 성의를 보이십시오.
8. 혹 상대방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며 시도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마가 11:25).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방해를 받습니다.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1. 용서란 타인이 내게 진 빚을 완전히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2. 용서는 선택이 아닌 계명입니다.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 3:13)
3. 당신 혼자만의 힘으로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참된 사랑과 용서를 성취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4. 용서는 당신의 의지적인 결정이지 감정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반드시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5. 용서하는 이가 용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6. 은혜와 자비로 용서할 때 가장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이 주님이 그에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7. 용서란 잘못을 묵인하거나 눈감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8. 용서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9.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잘못과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분한 마음과 화를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분한 마음과 화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도를 통해 다시 용서하십시오.
10.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흔 번씩 일곱 번 (마태 18:21-22). 다시 말하면 무조건 무제한 용서해야 합니다.
11.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누가 17:4) 바꾸어 말하면, 상대방이 온전히 깨닫고 행동을 바꾸지 않더라도 당신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12.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도 용서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23:24)
13. 마가복음 11:25 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서 용서해야만 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원리를 먼저 종이에 기록한 사람들에게 적용하십시오. 모든 깨어진 관계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당신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DAY 8: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의 중보라고 설명합니다. 이 언약은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주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인해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10)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 7:21).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엡 2:8-9).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기에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약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7)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가랴 1:3)

둘째 날에서 묵상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두 손을 벌리고 당신의 삶으로 드리는 참된 제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드릴 사랑과 순종과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온 맘으로 주님께 돌아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성경구절을 읽으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성회로 모여서 주님을 향한 언약과 헌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인도자 1: 베드로전서 1:13-16, 베드로후서 3:10-14, 골로새 3:1-14

회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옛사람의 모든 죄악 된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흠 없고 순전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자 2: 요일 4:19, 로마서 5:8, 에스겔 36:25-27

회중: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숨은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당신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인도자 3: 요한 1 서 2:15-17, 마태 6:25, 32-33

회중: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구하겠습니다.

인도자 4: 말라기 3:6-10, 마태 23:23, 마태 6:19-21

회중: 오 주님, 우리는 그 동안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것을 흠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인도자 5: 마태 28:19-20, 요한 15:15, 21,23-24

회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며 우리의 순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자 6: 고린도후서 5:14-21, 사도행전 1:8

회중: 주 예수님,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메신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기도하며 영원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대사명에 신실하게 순종하겠습니다.